

기획 특집 일곱교회

- 에베소 교회
- 서머나 교회
- 버가모 교회
- 두아디라 교회
- 사데 교회
- 빌라델비아 교회
- 라오디게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훈 (1)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차침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요한계시록 2:18~20)



당회장 이재록 목사

-
- 예수교대한연합성결회 총회장
- (사)기독교 세계부흥선교협의회 상임총재
- (사)국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 공동총재
- 세계 기독교방송 네트워크(GCN) 이사장
- 세계 기독교사 네트워크(WCDN) 이사장
- 만민국제신학교(MIS) 이사장
-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
- 목회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
-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등에 방송 설교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문화일보, 한국경제신문, 코리아헤럴드, 시사뉴스, 크리스찬신문 등에 신앙칼럼 정기 게재
- 미국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메릴랜드, LA, 하와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페루, 러시아, 독일,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등에서 연합대성회 인도

두아디라는 당시 군사와 교통의 요지로 공업 및 상업이 번창했으며 각 산업마다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업종과 관련된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생계에 큰 지장을 받을 정도였으며 조합원은 정례적인 행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노동조합마다 그들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낸 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신전의 창기들과 더불어 음행이 이어졌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교훈은 무엇일까요?

1.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어둠을 환하게 밝히며 파사로움을 느끼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동시에 모든 죄악을 태우며 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해 진리와 비진리를 밝히 분별하는 불꽃이기도 합니다. 곧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각 사람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므로 그 눈이 ‘불꽃 같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계시록 1:15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말씀하셨습니다. 금, 은, 주석 등을 정련하는 과정에 풀무를 할수록 온도가 올라가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풀무에 단련하는 만큼 금속의 순도가 높아져 가치가 더하고 빛이 나지요.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주님께서 발조차도 빛난 주석같이 깨끗하며 순결하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고 하신 것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영광과 위엄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 번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주님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고 만물을 심판하며 지극히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분임을 알려 주기 위해서입니다(요 20:31; 요일 4:15).

주님께서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한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이신 주님이므로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형상에 경배하거나 섬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2.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말씀을 주님의 칭찬이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지만 사실 칭찬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지 그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이 식어 처음 행위를 잃은 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것과는 반대로,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는 처음보다 더 깊고 승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오직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신 ‘사업이란 이윤을 추구하는 육적인 사업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업, 곧 영혼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고 심방하고 선교활동을 벌이는 것, 여러 가지 사명을 맡아 충성 봉사하는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런저런 육적인 사업을 벌이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그 안에 개인의 이익을 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감추고 있지요.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분란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혹여라도 교회 안에 세상적인 사업과 관련된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 일에 관해 대화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간에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를 위해 희생하되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며(요일 4:7-8)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러한 사랑이 있었습니까.

믿음은 진실과도 직결되는데, 두아디라 교회에는 믿음 또한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면 다른 사람이 진실을 말해도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진실이 있을 때라야 상대의 진실도 알아보고 믿어 줄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든 마찬가지로 진실이 임한 만큼 진리인 하나님 말씀도 믿을 수 있고, 온전한 믿음도 임합니다(히 10:22).

또한 두아디라 교회에는 섬김이 있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과 같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섬기기 위해서였지요(빌 2:6; 막 10:45).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물론, 성도 간에 서로 섬겨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은 겉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섬기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진심어린 존중과 섬김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아디라 교회에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 길은 좁은 길이므로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마 7:13-14).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는 수고도 있어야 하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님의 이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요시는 길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 (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팀 (02)818-7391~3

|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대학·가·안·청년·배울·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휴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대만 정기구독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2) 851-3845
070-8240-5609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